

이기는 삶

고난과 역경은 축복의 통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찾는다. 그러나 성장과 편안함은 공존할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대신 기꺼이 어려움을 택한 사람들이다. 힘들고 험한 길일수록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절대 쉬운 길을 택하지 마라. 쉽고 편안한 환경에선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이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역경에 처했을 때는 나를 둘러싼 환경 하나 하나가 모두 불리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요 약이 된다.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역경은 잠시 몸이 괴롭고 마음이 쓰리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낸다면 많은 소득을

기약할 수 있다. 산을 오르더라도 힘들게 정상에 올라야, 내가 올랐던 가파르고 험한 길과 내 몸을 멎게 했던 바위와 내가 흘려야 했던 땀,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폭풍과 살이 타는 것 같은 더위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 그러한 악조건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난에 처했을 때 오히려 환호하라. 나의 내면에 있는 힘이 더 큰 자유를 찾아 더 큰 세상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기(志氣)를 모아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서라.

기회는 지금 여기에 있다(Opportunity is now here)와 기회는 아무 곳에도 없다(Opportunity is nowhere)는 영어문장은 한 단어를 띄어 쓰느냐 붙여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련을 기회로 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14세에 실명이라는 고난을 딛고 일어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이 된 강영우 박사는 역경은 고난의 능력(Negative Capacity)을 키워주는 데, 이는 그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능력이고 결국은 인생승리의 자산이 된다고 말한다.

불우한 처지에서는 주위의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좋은 침과 약이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조와 품행이 반듯하게 단련된다. 고난은 뼈를 튼튼하게 한다. 삶의 악조건들은 나를 보다 강하게 만드는 진정한 인생의 보약이 된다. 온갖 어려운 문제들을 겪어보아야 지혜와 혜안이 생기는 법이다.

꿈을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고락력(苦樂力), 즉 고생이냐 노력을 즐기는 힘의 차이이다. 괴로움을 피하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괴로움과 역경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은 괴로운 일도 즐기며 성장한다.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역경, 고난, 방해가 나를 정직하고 강하게 해주었다. 힘든 일이 나 괴로운 일은 감사한 일이다” 윌트 디즈니의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괴로움을 견디는 것을 노력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괴로움의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괴로움을 견뎌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고난과 역경을 감사의 열매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만이 만인의 존경과 축복을 받는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Abandon “myself” “나”를 버려라!

모든 세포들은 삶과 죽음의 순환을 가진다. 세포의 수명은 약 8년이다. 세포는 8년 안에 죽는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피로부터 생성된다.

▶ All cells are in a cycle of life and death. The life-span of a cell is about 8 years. A cell dies in 8 years and a new cell is formed from blood.

그러나 피가 썩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 게다가 만약 피가 썩으면 새롭게 형성된 세포들 또한 건강하지 않은 세포가 된다.

▶ If the blood, however, has become rotten, new cells are not formed well. Furthermore, if the blood is rotten, the newly-formed cells are also unhealthy cells.

만약에 피가 10퍼센트 썩으면 그만큼 많은 수의 세포가 생성될 수 없다. 오직 정상세포의 90퍼센트만이 만들어진다. 만약 20퍼센트가 썩으면 80퍼센트만이, 30퍼센트가 썩으면 70퍼센트만이 생성이 된다.

▶ If the blood is 10 per cent rotten, then as many cells cannot be formed. Only 90 per cent of normal cells are made. If 20 per cent, then 80 per cent, if 30 per cent, then 70 per cent.

간략히 말하면, 새로운 세포들은 피의 썩음에 반비례하여 생성된다. 게다가 세포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모든 신체 기관들은 약해진다.

▶ In short, new cells are formed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decay of blood. What is worse, as the cells diminish in number, all the organs of the human body weaken.

그 세포들은 약하게 작동한다. 위, 뇌, 눈, 귀, 어느 것도 온전히 작동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신체 기관은 새로운 세포들의 생성 비율에 비례하여 움직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를 썩지 않게 노력해야만 한다. 피를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 They work feebly. The stomach, the brain, the eyes, the ears, none work fully. That is to say, the organ works in proportion to the production rate of new cells. Therefore, we must try not to decay the blood. The way not to decay the blood is just abandon “myself”.*

by Alice

1면정도령: 평화통일 운전자 구세주 정도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장31절)

북핵문제로 야기된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의 시발점을 창세기 두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만이 논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과 미국 간 자존심 대결의 핵심을 달리 표현하면 ‘창조론의 악령과 우물론의 망령’이 벌이는 신들의 전쟁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창조론을 신봉하는 미국, 피조물 인간 이기를 철저히 거부하고 인간의 절대적 존엄을 주체사상으로 신봉하는 우물론 국가 북한의 국가 통치이념인 정체성 지키기 싸움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언론을 동원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공포를 통하여 복한은 자신이 미국에 대적이 가능한 핵무장 국가라는 인식을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인민들에게 심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등한 핵무장 국가로서 핵두형통으로 이어져 온 주체사상의 우수성을 과시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벼랑 끝 전략이다.

한반도를 평화통일로 인도할 운전자 구세주 정도령
6천 년 만에 갱신한 하나님 면허증, 감로해인 이슬성신

문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남북 문제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본’을 재확인했다.

고장 난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차를 운행 가능한 상태로 수리를 해야 한다. 수리를 마친 후에는 평화통일의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이끌어 줄 운전

자가 필요하다.

현재 고장 난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북미 간 동서냉전을 ‘통일과 화해로의 정상화’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고장이 발생한 시발점인 인류역사 6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에 합당한 수리와 운전이 가능한 기술과 자격을 가진 주인공이 바로 성경과 불경과 격암유록이 증거하는 구세주, 생미륵불, 정도령이다. 성경, 불경 그리고 격암유록은 그 자격을 특한 면허의 증표로 그가 함께 하는 곳마다 이슬성신, 감로수, 감로해인이 내린다고 했다.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승리제단이다.

메시아 구세주가 출현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이라는 종교단체를 설립하여 인류구원의 역사를 펼친다고 해서 구세주 메시아가 어떤 특정 종교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세계 만민이 다함께 더불어 누려야 할 영생복락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100% 국민통합을 이루는 통일대통령이 되려면 명견민리의 혜안을 가진 살신성인의 현인이 필요

대통령에게는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있다. 대통령이 출연하는 행사에서 대통령이 ‘소통 대통령’ ‘감성 대통령’ ‘탈권위 대통령’ 등으로 보일 수 있도록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행사의 달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현란한 이벤트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귀 기울이게 하여 당장에 필요한 이미지를 국민들의 기억에 심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정도가 기획의 정석이요 최고의 정책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핵문제로 강대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이해충돌에서 당당하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공조를 통한 대화나 압박 전략이 아니라, 구세주 메시아의 가르침을 문제해결의 근본지침으로 삼는 것, 그리고 구세주의 존재를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다. 이것만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요, 백성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최선책이다.

촛불의 본질은 자기의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자기희생이다. 자신을 온전히 죽여 세계만민들에게 불사영생의 깨달음을 전함으로 온 우주를 광명천

세례요한은 옥에 갇혀서야 예수의 메시아 자질을 의심함

신학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 예수의 제자 바울로 개명한 후, 그 바울이 예수와 동행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등과 적극적으로 면담하여 예수 생존시의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로 들었지만 예수의 구원론이 온전하지 못함을 파악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이며 온전치 못한 진리이며, 앞으로 온전한 구원론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폐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고전13:10).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라는 인자는 분명 한 명인데,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두 가지로 나온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한 마귀 말과 마귀를 이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한테 물세례를 줄 때, 공중신은 하나님의 신으로 가장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조작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욱(獄)에 갇힌 세례요한은

1면 성경탐구: 진짜 메시아의 구원론과 믿음론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의 행적을 보고 받은 후 병고침만 행하고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는 예수의 메시아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중신은 요한에 의해서 그 자신과 예수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재빨리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만들었다.

예수 자신도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자라고 철저히 믿고 있었다. 그러나 욱중에 들어간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 자신에게 보내어 ‘오실 이(메시아)가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놓고 지금 와서 의심하는 것이 매우 분노하였다. 하지만 용의주도한 예수는 속으로만 분노하였지 겉으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예수는 세례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칭찬하는 것처럼 말을 꾸미는 동시에 천국 커트라



요한이 욱중연회 온 제자로부터 예수의 근황을 듣고는 예수가 메시아의 사명으로 온 것인지 의심함 (마11:3)

인에 걸려 겨우 구원받은 자보다 낫다고 말한다(마11:11).

이렇게 요한은 결코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지옥자식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2천년 동안 이러한 예수의 언중유골을 캐치한 자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 입을 빌리는 공중신과 하나님 신의 치열한 싸움
하나님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공

중신 마귀가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작전을 쓰고 있는가를, 하나님 스스로 알아차렸던 것이다. 공중신은 자신의 신분이 마귀라는 것을 숨기고 하나님 이름으로 가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저항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후천국론’이라는 교활하고도 달콤한 꾀변으로 기독교의 이념으로 물들이는 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예수 생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

인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서양의 헬레니즘 사상에 물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 또한 공중신 마귀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귀세상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마귀의 감시망을 피해가면서 예수 입을 빌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에 밀리지 않게 매진해왔던 것이다.

끝으로 예수 입을 빌리는 공중신과 하나님 신의 치열한 싸움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 열거해 본다. (1) 마태복음 22장 4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구세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다. 이에 하나님은 예수의 입을 빌려 “주님 되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다윗이 분명히 말했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의 자손이 되는 예수 또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인데, 이것을 우둔한 마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12장 37절을 사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2)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입을 빌려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둔한 마귀는 ‘예수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면 반대로 예수는 마귀의 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고로 하늘나라가 지금까지 임하지 못했다는 의미요 또한 예수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는 자백의 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3) 예수는 자기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다(요3:16)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입을 빌려 시편 82편 6절의 구절을 인용하게끔 하여 예수 자기만이 하나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음을 암시 하였던(요 10:34). 그러나 우둔한 마귀는 동방의 해 돋는 곳인 한반도에서 출현하신 구세주에 의해서 사람이면 모두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성경구절을 발표하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박태선 기자